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2

▶ 전북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814

Ungyori fan delta

진안분지에 쌓인 퇴적물의 역사책



이곳 절벽의 암석은 약 1억년 전에 모래, 자갈, 진흙 등이 쌓여 만들어지는 퇴적암이며, 절벽의 줄무늬를 잘 관찰해보면, 반듯하지 않고 경사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삼각주 퇴적층이라 부르며, 경사의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삼각주 퇴적층은 과거 퇴적암이 만들어질 당시 주변 환경과 흐르는 물의 방향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④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의 지형 구조



천반산 감입곡류하천

3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산 2

Cheonbansan Betrenched Meander

지반 융기에 의해 형성된 아름다운 곡류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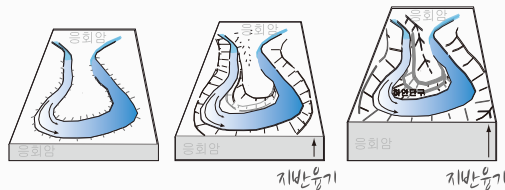
진안읍과 동향면 그리고 장수군 천천면 등 3개읍 면에 걸쳐져 있는 높이 647m의 천반산과 그 서쪽 끝 산등성이인 죽도는 삼국시대에 조성된 산성이 있는 천연의 요새 지역이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선조 때 정여립장군이 역적으로 몰리어 관군에 대항하며 최후의 항전을 펼쳤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천반산 지역에서는 약 9천만 년 전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분출한 화산재와 각종 돌맹이들이 쌓여 응회암이라는 암석을 형성하였다. 암석 주변으로 비교적 반듯하게 흐르던 하천은 암석 가장자리의 약한 부분을 깎아내면서 점차 굽어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하천을 감입곡류하천이라 부른다.

⑤ 천반산 지질경관 형성 과정

▶ 진안 지역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남



▶ 천반산 지역이 빠르게 융기하면서 하천 바닥 침식이 일어남



구봉산 화산암경

4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정주천로 597

Gibongsan Volcanic Neck

풍화 침식된 화성암이 이루는 아홉 봉우리의 기암절경



구봉산은 운장산의 동쪽 능선에 위치하며 수직 단애(절벽)와 어우러진 아홉 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었다. 주봉인 천황봉 이외의 8개의 봉들은 막 피어오르는 연꽃 모양을 하였다 해서 연꽃산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구봉산의 아홉 봉우리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출하는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 졌으며, 현재의 모습은 오랜시간 풍화와 침식에 의해 암석의 약한 부분이 깎여 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구봉산 절경



운일암 반일암(백악기 화산암류)

5

▶ 전북 진안군 주천면 동상주천로 1926

Unilam-Banilam(Cretaceous Volcanic Rocks)

8천만년 전 흘러내린 용암바위 덩어리



운일암 반일암은 운장산에 위치한 계곡으로 구름(雲)만이 오갈 수 있으며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나절 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운일암 반일암은 과거 전라강영 전주와 용담현을 잇는 주요한 길로서 현령이 부임하는 통로이자 백성들이 물자를 지고 나르던 통로였다. 곳곳에 자리한



▶ 대불바위

잔도

운일암반일암 곳곳에 자리한 깎아지른 절벽을 지나기 위해 나무를 걸고 이동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를 허공 중의 다리라 불렀는데 고지도에 '반일암잔도(半日岩棧道)'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도로가 나면서 반일암잔도는 모두 사라졌지만 곳곳에 잔도의 흔적들은 확인할 수 가 있다. 잔도의 흔적을 통해 이 험한 계곡을 잔도를 이용해 이용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운일암 반일암 잔도 흔적



▲중국의 잔도